믿음 · 정성 · 희망
박운종 세무회계 사무소
TAX ACCOUNTING & CONSULTING SERVICE
•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세무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 의정부 조사1과(법인조사)
031)872-6116
016-684-2400
의정부시 의정부3동 98-2 유성B/D 3층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새포천고속관광(주)
Tel: 031)544-8888

차세대 해외한인경제인 무역스쿨

세계 한인무역경제인 자녀 100여명 참석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주관하는 제5기 재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 무역스쿨이 7월22일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입교식을 갖고 8박 9일간으로 진행됐다.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주관하는 제5기 재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 무역스쿨이 7월22일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입교식을 갖고 8박 9일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차세대 무역스쿨 행사는 올 4월 포천시에서 열린 바 있는 제9차 World-OKTA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 후속 행사로 World-OKTA 천용수 회장의 포천지역에 대한 큰 관심속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에서 이런 큰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참가자들은 각자가 경제사관생도라는 마음을 갖고 무역스쿨을 통해 실무 기초를 배우는 것은 물론 인맥을 쌓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차세대 무역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51개국 94개 도시에서 활동중인 세계해외한인무역경제인들의 자녀들로서 차세대 한인무역경제인으로 활동해 나갈 22세~35세에 해당하는 남녀 청년층 100여명이 참가해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경제상황을 배우고 세계시장의 흐름과 무역활동에 필요한 무역실무 등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다.

또한 포천시는 행사기간 중 참가자들이 애국심을 기를 수 있도록 5군단 군부대 입소 1일 병영체험 프로그램과 전통한과마을사업단 견학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모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운영위원회와 신문사 발전방향 논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67차 정기회의 개최

제67차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용)는 7월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6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위원 위촉의 건과 포천신문 구독자 확보의 건, 기타안건으로 포천신문 창립기념일 행사의 건 등이 논의됐다.

신임위원 위촉의 건에 관한 논의에서 장기간 참석하지 않고 있는 위원과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위원 거취문제는 제명처분 혹은 사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참석한 위원들 대다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구독자확보의 건 논의에서 윤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지만 아직 포천신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서 "주변 사람에게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권유하자"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2년전 포천신문 창간기념일 행사를 거대하게 했다"며 "올해 창간기념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이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운영위원께서는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고 태풍등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운영위원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바쁜 와중에도 포천신문이 잘 운영되도록 참여해 주고 신문이 잘 발행되도록 참여해 준 점에 감사 드린다"면서 "그동안 사용해 온 (주)한국정보를 (주)포천신문사로 법인을 변경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알맹이 있는 신문이 되도록 도움을 준 점 감사드리고 운영위원회와 포천신문사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소속 위원회 적극 활동 다짐

포천신문 골프회 7월 정기월례회의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7월26일 12시부터 포천아도니스골프장에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라운딩을 갖고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신문 골프회가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각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과 다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헌신·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라운딩은 지리한 장마가운데 모처럼 만난 뜨거운 태양아래 18홀을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발전은 물론 포천신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골프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휴가철에 멋진 휴가 보내시고 8월 정기월례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라운딩을 마치고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돼 기쁘다"며 윤이용 운영위원장의 100파 돌파기념패 전달과 이찬우 회원 장모 고희 잔치 축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천신문 골프회 7월 정기라운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박영주 회원▶메달리스트 김진우 회원▶준우승 박영선 회원▶근접상 김정선 회원▶장타상 최호열 상임고문▶행운상 이수복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박노현 포천신문 골프회장(오른쪽)이 7월 우승자 박영주 회원에게 우승패를 전달했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㉑ 뿔논병아리 [Great crested Grebe]

"나비넥타이와 무스를 바르고"

2006.08.12 양수리에서 촬영

까만 뿔 깃에 무스를 발라 예쁘게 치장하고, 길다란 목에는 나비넥타이를 매어 한껏 멋을 낸 뿔논병아리를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양수리에서 입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새는 어린 새를 등에 업고 다니는데, 이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끼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미와 새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러 양수리까지 새벽바람을 맞으며 달려갔지만 어린 새는 이미 다 자라서 이런 장면을 담을 수 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뿔논병아리 부부는 벌써 어린 새끼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어린 뿔논병아리는 어미 곁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지 어미에게 계속 어리광만 부리고 있더군요.

어미는 40cm급 붕어를 사냥하여 삼키려다 물고기가 너무 커서 한번에 삼키지 못하고 먹이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뱉어 버리니까 어린 새끼도 어미 흉내를 내려는지 먹이를 한 입에 물고 삼키려는 동작을 반복하더니 결국 어린 새끼도 포기를 하더군요.

뿔논병아리는 먹이를 사냥하면 부리로 찢어먹을 수가 없고 통째로 삼켜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삼키기에 적당한 먹잇감을 사냥해야 하는데, 가끔씩 욕심을 내어 덩치가 큰 물고기를 사냥하다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더군요.

결국 버린 먹이는 지나가던 왜가리의 만찬이 되어버립니다.

호숫가나 강가에서 이런 새를 사진에 담다보면 은폐할 공간이 없어 새들에게 노출되어 선명한 모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가슴까지 차 오르는 물속에 들어가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내곤 합니다.

이번 사진은 댐 수문방류로 인하여 하천 옆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 들어갈 수가 없어 길옆에 업드려 매복한 다음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가까이 접근한 뿔논병아리 어미와 어린 새끼의 다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기만한 뿔논병아리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뿔논병아리의 아름다운 깃장식은 18세기 영국 귀족사회 여성들의 모자를 비롯한 패션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유럽지역에 뿔논병아리의 멸종위기를 초래하였고, 급기야 영국의 귀족층에서는 뿔논병아리의 깃장식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영국 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Protection of Birds)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뿔논병아리는 시베리아, 중국 북부지방, 몽골, 티벳 등지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는 겨울철새이나 최근에는 번식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는 개체가 양수리, 천수만 등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포천지역에서도 뿔논병아리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지난 봄부터 여러 지역을 탐조하여 보았지만 올해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 상 일
017-705-0994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
Pocheon of Fortune
25개국 52개도시
제5기 재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 무역스쿨 개최
The 5th Overseas Korean Home Coming Next Generation Trade School
● 일 시 : 2007. 7. 22 ~ 27 (6일간)
● 장 소 : 포천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 목 적 : 세계 재외동포의 차세대 청년 무역 경제인을 한민족 경제 사관생도로 육성함으로써 한국상품 수출 증대에 기여
● 참 가 : 해외 25개국 51개도시 88명
● 주 최 :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 후 원 : 산업자원부, 경기도, 포천시, KOTRA
● 문 의 처 :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Tel. 538-2284~7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포천시 POCHEON-SI www.pcs21.net
OKTA World-OKTA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